

백악관 실세 비서실장 “트럼프 알코올중독자 성격”

(수지와일스)

와일스 인터뷰 파장... 정적 기소 '보복성' 인정 밴스 등 美행정부 고위직에 신랄 평가 이어져 본인 “부정직하게 꾸며진 악의적 기사” 반박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최측근으로 평가받는 수지 와일스 백악관 비서실장이 트럼프 대통령을 ‘알코올중독자 성격’ 소유자로 표현하고, 부통령 등 일부 행정부 고위인사를 신랄하게 평가한 인터뷰 기사가 16일(현지 시간) 공개됐다.

그간 트럼프 대통령이 와일스 실장에 대해 공개적으로 전폭적인 신뢰를 표명해왔다는 점에서 이번 인터뷰는 미국 정가에 작지 않은 논란이 예상된다.

미 대중문화 윌간지인 배너티 페어는 이날 와일스 비서실장과 올해 트럼프 대통령의 집권 2기 취임식 직전부터 꾸준히 인터뷰를 했다면서 2쪽지로 나눠진 기사를 송고했다.

보도에 따르면 와일스 실장은 인터뷰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알코올중독자의 성격을 가졌다”며 “그는 자신이 할 수 없는 일은 없다는 시각으로 행동한다”고 했다. 또 알코올 중독의 부친을 둔 와일스 실장은 “고도 알코올 중독자나 일반 알코올 중독자들의 성격은 술을 마실 때 과장된다”며 “그래서 나는 강한 성격의 소유자들에 대해 어느 정도 전문가”라고 말하기도 했다. 와일스 실장은 또 트럼프 대통령이 집

권 2기 행정부 출범 첫날, 집권 1기 마지막에 발생한 2021년 1월6일 의회 의사당 폭동 가담자들을 사면한 것과 관련 ‘선별적 사면’을 제안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결국 트럼프 대통령의 결정에 “어느 정도 동의하게 됐다”고 했다.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 이후 불법 이민자에 대한 대규모 추방작전 당시 미국인 아이를 둔 여성을 강제 추방한 것에 대해 와일스 실장은 “어떻게 그런 실수를 할 수 있는지 이해할 수 없지만, 누군가가 그렇게 했다”고 지적했다.

와일스 실장은 아울러 트럼프 대통령의 정적 및 정치적 반대자에 대한 기소 등에 대해선 “우리(트럼프-와일스)는 (집권 2기 취임 후) 90일이 지나기 전에 보복은 끝내기로 의견 일치를 봤다”고 말했다.

그는 트럼프 대통령이 “보복을 하고 있지 않다고 생각한다”고 말했지만, 이후 레티샤 제임스 뉴욕주 법무장관을 대출 사기 혐의로 수사하는 것에 대해선 “그건 하나의 보복일 수 있겠다”고 인정했다.

와일스 실장은 민주당 출신인 빌 클린턴 전 대통령이 성착취범 고(故) 제프리 엡스타인이 성범죄를 저지른 후 화해제약이 있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최측근으로 평가받는 수지 와일스(왼쪽) 백악관 비서실장의 인터뷰 기사가 16일(현지 시간) 공개됐다.

연합뉴스

섬을 방문했다는 트럼프 대통령의 주장에 대해선 “증거가 없다. 그 점에 관해선 대통령이 틀렸다”라고도 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4월2일을 ‘미국 해방의 날’이라고 부르며 상호관세를 발표한 것과 관련, 와일스 실장은 “관세가 좋은 정책인지에 대해 엄청난 의견 불일치가 있었다”고 전했다.

그는 “우리는 트럼프 대통령에게 ‘오늘은 관세에 대해 얘기하지 말자. 팀이 완전히 의견일치를 이룰 때까지 기다린 다음에 하자’고 제안했다”고 전한 뒤 트럼프 대통령이 결국 상호관세를 발표한 것에 대해 “예

상보다 고통스러웠다”고 말했다.

베네수엘라에 대한 압박을 ‘마약 유입 차단’을 위해서라고 강조해온 트럼프 대통령은 달리 와일스 실장은 “(트럼프는) 마두로가 항복할 때까지 계속 배를 격침하고 싶어 한다”고 말했다. 이는 결국 트럼프 대통령의 명령에 따른 카리브해에서의 대대적인 미군 군사력 배치 목적이 니콜라스 마두로 베네수엘라 정권 축출에 있음을 시사한 것으로 풀이된다.

인터뷰에서는 트럼프 행정부 고위 인사들에 대한 와일스 실장의 가감 없는 비판 발언도 공개됐다.

JD 밴스 부통령에 대해선 “10년간 음모론자였다”면서 그가 트럼프에 대한 비판자에서 적극적 추종자 또는 지지자로 돌아선 것에 대해선 “일종의 정치적 이유 때문”이라며 비판적인 시각을 감추지 않았다.

와일스 실장은 트럼프 2기 초기 정부 효율부를 이끈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를 마약류의 일종인 케타민 중독자로 지칭하면서 “천재들이 그렇듯 이음을 시사한 것으로 풀이된다.”

인터뷰에서는 트럼프 행정부 고위 인사들에 대한 와일스 실장의 가감 없는 비판 발언도 공개됐다.

예산관리국장에 대해선 “우과의 절대적 광신도”라고 했다.

와일스 실장은 전면에 나서길 꺼리며 트럼프 대통령을 묵묵히 보좌하는 스타일로 유명하다. 트럼프 대통령이 그를 “얼음 아가씨”라고 부를 정도였다.

이런 인사가 이처럼 속내를 다 털어놓은 듯한 인터뷰를 한 것은 매우 이례적으로 평가된다. 뉴욕타임스(NYT)는 ‘극도로 경계심 없는’ 인터뷰로, CNN은 ‘이례적으로 솔직한’ 인터뷰로 각각 표현했다.

버락 오바마 전 대통령의 비서실장을 지낸 람 이매뉴얼 전 시카고 시장은 AP 통신에 인터뷰를 읽었을 때 짜짜 패러디 기사인 줄 알았다면서 백악관 비서실장이 선거 후보자 인터뷰 같은 일을 한 것을 본 적이 없다고 말했다.

와일스 실장은 곧바로 해당 기사에 소개된 자신의 발언들이 짜깁기됐다고 주장했다. 그는 자신의 엑스(X·옛 트위터)에 “오늘 새벽에 공개된 기사는 나와 최고의 대통령 및 백악관 직원, 내각을 대상으로 한 부정직하게 꾸며진 악의적 기사”라고 반박했다.

그는 또 “중요한 맥락은 무시됐고 나와 다른 사람들이 팀(트럼프 행정부)과 대통령에 대해 언급한 상당 부분이 누락됐다”며 “기사를 읽고 보니 이는 대통령과 우리 팀에 압도적으로 혼란스럽고 부정적인 서사를 그리기 위한 일이었다고 추정한다”고 덧붙였다.

연합뉴스

홍콩 행정장관 ‘반중 언론인 판결’ 시진핑 대면보고

지미 라이 사건 보고... “시 주석, 국가안보 수호 의무 이행 지지”

홍콩의 반중(反中) 언론인 지미 라이(78)에 대한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 유죄 판결을 둘러싸고 국제사회에서 규탄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 가운데 홍콩 행정장관이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에게 해당 판결 내용을 대면 보고했다고 밝혔다.

17일 로이터통신과 홍콩 성도일보 등에 따르면 존 리 홍콩 행정장관은 전날 베이징에서 취재진과 만나 시 주석에게 홍콩의 정치·경제·사회의 전반적인 상황을 보

고하면서 지미 라이의 유죄 판결 내용을 언급했다고 말했다.

리 장관은 지미 라이 사건에 대한 시 주석의 반응을 구체적으로 전하지는 않았으나 “시 주석이 정부와 사법부가 국가안보를 수호할 의무를 이행하는 것에 대해 강력하게 지지한다는 것도 재확인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그는 “지미 라이에게 적용된 3개의 공소 혐의가 모두 성립됐다”라면서

“법원의 유죄 판결은 법의 정의를 드러냈으며 홍콩의 핵심 가치를 수호했다”고 덧붙였다.

시 주석은 이외에도 최소 160명의 사망자가 나온 홍콩 아파트 화재 참사와 최근 치러진 입법회(의회) 선거 관련 내용 등도 보고받고 홍콩 정부의 업무 상황을 긍정적으로 평가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미 라이에 대한 유죄 판결은 시 주석 업무보고 바로 전날인 15일 나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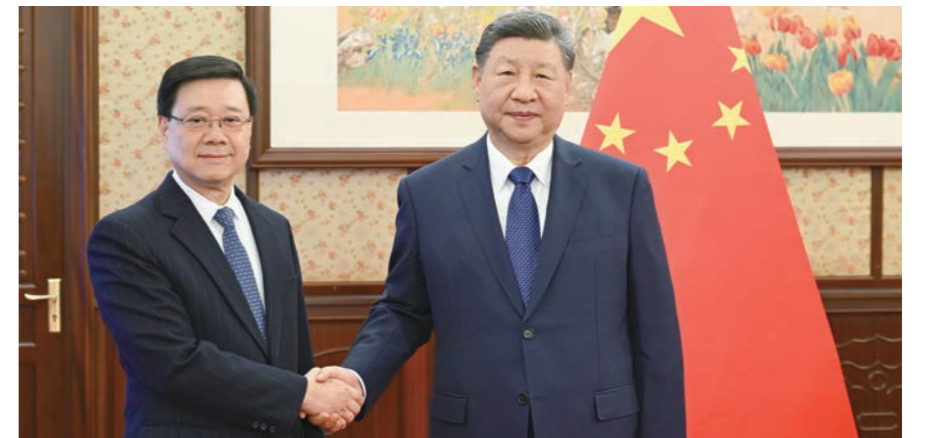
유죄 판결이 전해지자마자 미국과 영국, 호주, 대만 정부와 국제 인권단체들이 그의 석방을 촉구하고 나섰다. 최근 들어

중국과 갈등이 깊어지고 있는 일본 정부도 공개적으로 우려를 표시했다.

리 장관은 지미 라이의 석방을 요구하는 움직임에 대해 “정의를 옹호하고 법치주의를 지키는 것”이라면서 “우리는 이러한 정부 관료들을 규탄한다”고 말했다. 그는 또 이들의 목소리를 보도한 언론들까지도 규탄했다.

지미 라이는 홍콩의 대표적인 반중 매체 빈과일보의 창업자이자 사주로 국가보안법 시행 직후인 2020년 8월 체포됐고, 그해 12월 재판에 넘겨졌다.

홍콩고등법원은 15일 지미 라이의 선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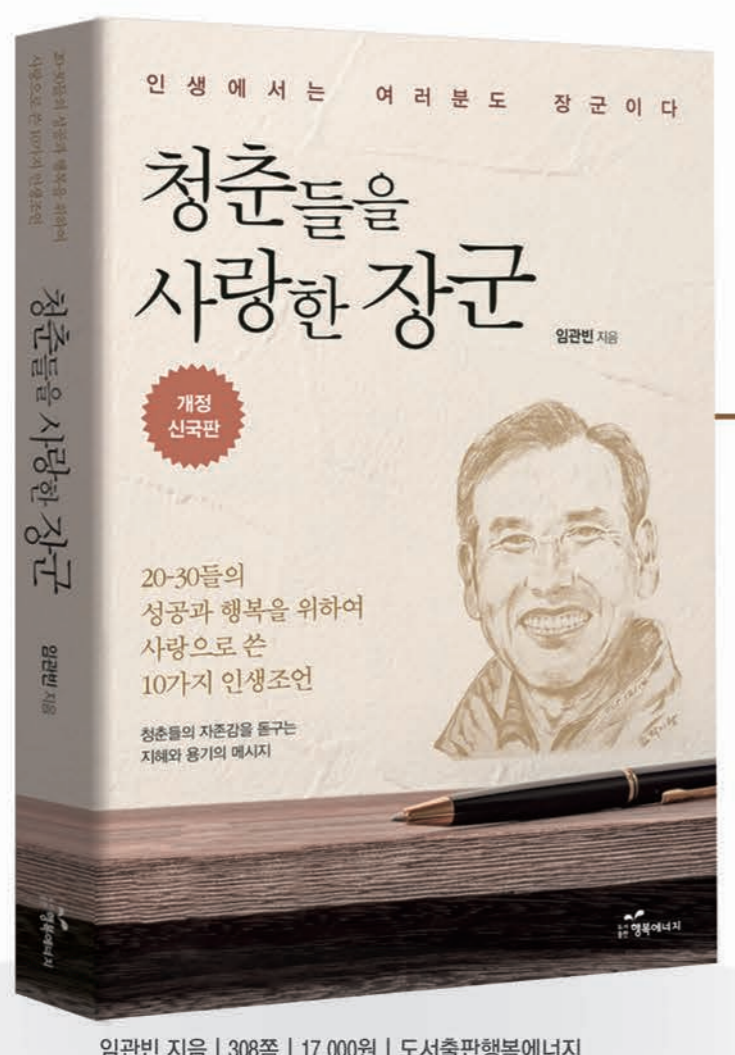
존 리(왼쪽) 홍콩 행정장관이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에게 홍콩의 반중(反中) 언론인 지미 라이에 대한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 유죄 판결 내용을 대면 보고했다.

연합뉴스

공판에서 외국 세력 공모와 선동적 자료 출판 등 세 혐의 모두에 유죄 판단을 내리면서 양형 선고 일정을 되도록 조기에 발표하겠다고 했는데, 최대 중선형이 내려질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그가 ‘홍콩 반환’ 전인 1995년 6월 창간한 빈과일보는 중국의 전방위 압박 속에 결국 2021년 6월24일 자진 폐간했다.

연합뉴스



2030의 성공과 행복을 위해 사랑으로 쓴 10가지 인생조언

우리는 삶을 살며 많은 일을 겪습니다. 희로애락이 뒤섞인 삶 속에서 당연히 행복한 순간이 있고 괴롭고 어려운 순간이 있습니다. 행복한 삶을 살 때는 그것을 유지하기 위해 노력하고, 힘든 일이 있을 때는 그것을 이겨내는 정신력과 다시 일어서기 위한 의지를 다져야 합니다. 『청춘들을 사랑한 장군』에서도 여러분은 각자의 인생에서 장군이라고 했습니다. 현재의 2030청춘들이 본인의 삶의 지휘관으로서 언제나 승리할 수 있는 ‘군인정신’을 발휘해 지금을 이겨내고 행복한 미래를 만들어가길 바라며 이 책을 읽는 모든 분들의 삶에 행복과 긍정의 에너지가 팡팡팡 샘솟으시기를 기원드립니다.



임관민 지음 | 308쪽 | 17,000원 | 도서출판행복에너지